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September 16, 2022 Vol. 830

차광일 목사, 류성창 목사에 아름다운 바통 터치

**한빛교회 창립 35주년
 차광일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류성창 담임 목사 취임**

창립 35주년을 맞은 한빛교회(7941 page st, Buena Park, CA 90621)가 지난 11일, 교회를 개척 설립한 차광일 목사(67)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류성창 목사(47)를 제2대 담임 목사로 맞았다.

류성창 목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케네디트 믿음교회, 보스턴성결교회, 보스턴 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으며, 보스턴 웨스트포드한인교회를 담임한 바 있다.

취임사를 전한 류성창 목사 “담임 목사로 취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것”이라며 “한빛교회 교우들과 함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빛교회는 미주 성결교단 소속으로 1987년 6월, 차광일 목사와 두 가정이 LA 동부 웨스트코비나 인근 나사렛교회를 빌려 시작됐



한빛교회 류성창 담임 목사(좌)와 차광일 원로 목사(우) ©기독일보

다. 1997년 웨스트 코비나에 첫 성전을 구입한 이래 2005년 새 성전을 건축한 후 성장을 계속했고, 2014년에는 현재 남가주 부에나 파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구입해 입당했다.

한빛교회를 개척해 35년간 헌신한 차광일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젊은 후임자가 교회를 맡아 변화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정년을 4년 앞두고 조기 은퇴를 결정했었다.

차광일 목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와

기독교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주성결교회 제34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한빛교회에서 1987년부터 2022년까지 3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차광일 목사는 답사에서 “지난 35년 동안 목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동역해 준 한빛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며 “한빛교회가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영혼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서 류성창 목사님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감사에에는 김영근 목사의 집례로 박창현 목사(미주성결교회 LA 동지방회 서기)의 기도 이어 이대우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편 2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하의 시간에는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와 조종근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에게 각각 축사를 전했으며, 윤석형 목사(미주성결교회 직전총회장)와 최경환 목사(미주성결교회 전총회장)가 담임 목사와 성도에게 각각 편면했다. 김동욱 기자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 기독교계 애도 물결... “신실한 그리스도인”

영국 역사상 최장기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에 미국과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1952년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8일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에서 96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여왕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전하며 왕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웰비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사랑하는 여왕을 잃고 함께 슬퍼하며 수십 년간 세계, 국가, 사회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변함없는 충성과 봉사, 겸손을 지닌 분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또한 생전 여왕은 “날마다 신앙을 실천하셨다”면서 영국 성공회 최고 지도자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온 여왕의

믿음을 재조명했다.

빌리그래함 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회장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성명에서 여왕을 “70년 동안 영국의 안정과 확고부동함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래함 목사는 부친 고(故) 빌리 그래함 목사와 여왕과의 우정을 언급하며 “리더십의 모범과 청렴한 삶에 감사드린다”며 “부친은 여왕과 12번 이상 만남을 가질 특권을 가졌으며, 그녀는 부모님을 여러 번 버킹엄 궁전에 방문하도록 초대하신 자애로운 주인”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부친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 “보기 드문 겸손과 성품을 지닌 여성임을 알게 됐다고 하시며, 매일 여왕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씀했다”

고 말했다.

2018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에서 설교한 마이클 커리 미국 성공회 의장 주교도 조의를 표했다.

커리 주교는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고, 여왕의 삶과 유산을 축하한다. 그녀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녀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의 쾌활함, 위엄, 그리고 고요한 신앙과 경건의 본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평안히 쉬시고 영광 가운데 일어나기를”이라 추모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을 두 차례 역임한 조니 무어 목사도 여왕의 서거를 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ABC 뉴스 보도 화면 캡처

도했다.

무어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슬픔이 깊은 만큼, 고(故) 폐하께서 영국과 잉글랜드 왕국, 영연방을 위해 특별히 헌신해 주신 데 대한 감사는 더욱 깊다”라고 글을 남겼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2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Return to the Lord!
Repent, Restore, and Revive

일시 2022년 10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하나님의 비상 소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듯이 우리 모두 다민족 기도대회로 모입니다!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 이제라도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면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부흥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민족들이 모두 함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긍휼과 회복과 부흥을 구하는 복된 자리를 준비하고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310-995-3986), 공동준비위원장: 심상은 목사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8)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 오라 하셨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욥:2:12~28)

대회 조직
 고문: 박희민목사, 송정명목사, 김준근장로, 김영길목사, 김인식목사, 한기형목사, David Andrade, Dion Elmore, Jorge Fuentes, Allan Parker, Walter Tucker
 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강준민, 김경진, 김한요, 노창수, 민경엽, 민중기, 심상은, 박성규, 신승훈, 정영희, 진유철, 최홍주 (목사, 가나다순)

주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OC교협, JAMA, 성시화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

남가주 음악인들 선교와 이웃돕기에 한마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이영수 장로)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오는 25일(주일) 오후 5시30분, 나성한미교회(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에서 “제14차 사랑의 찬양제”를 개최한다.

이번 찬양제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대거 참여한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을 비롯해 Soli Deo, Orange County, 로스앤젤레스 체임버 콰이어,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CTS 아메리카, Orange Mission Choir, 유니온교회, 동부사랑의교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 중창단 등 총 10개 팀이 2곡씩 모두 20곡을 연주하며 찬양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수 장로는 “금번 사랑의 찬양제를 통해 세계적인 불경기와 팬데믹으로 인하여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과 오지에서 복음사역에 충성하시는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을 돕고자 한다”며 “즐겁고 기쁜 마



찬양제 홍보를 위해 본지를 방문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임원단. 좌부터 증경회장 하기언 장로(나성한미교회), 회장 이영수 장로(남가주광명교회), 수석부회장 오승홍 장로(벤엘한인교회), 총무 엄광섭 장로(벨리연합감리교회) ©기독교일보

음으로 동참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참여를 당부

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최내화 대표회장도 축사를 보내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최내화 회장은 “찬양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천국 잔치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찬양제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남가주장로성가단,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 LA지회, 크리스찬비전,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제14차 사랑의 찬양제에 관한 문의는 714-887-4454(이영수 장로), 909-319-2158(오성혜 권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원 가입 문의는 714-887-4454(이영수 장로)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작은 기도 운동이 미국을 변화 시킵니다”

남가주 제1회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 개최

제1회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가 지난 8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세계 기도센터에서 개최됐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중보 기도팀들과 여러 교회의 기도사역자들이 모인 이날 기도대회는 강태광 목사(중보기도팀 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각 기도제목들마다 기도를 맡은 기도팀 전원이 나와 함께 기도를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도대회에는 매일 철야기도를 드리는 미스바기도운동(박형준목사), CMF중보기도팀(김철민 장로), CBS중보기도팀(안현

숙 사모), 세계어머니기도회(이선자 목사), 리스틀스 중보기도팀(이인미전도사), 청교도신앙회복 운동기도동역자팀(강순영 목사) 등의 기도팀들과 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팀(전혜숙 목사), 감사한인교회 중보기도팀(전영숙전도사), 주님세운교회 기도사역팀(홍신우목사), 나침반교회 기도팀(김지수권사) 등이 동참했다.

이날 중보기도 연합 기도대회의 비전을 제시한 강순영 목사(연합 기도대회 준비위원장)는 예레미야 란피어가 시작한 정오기도 운동을 소개하면서 “뉴욕에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정오기도회가 미국을 새롭게 했고, 예일 대학교를 위시한 많은 대학들이 기도에 동참하므로 젊은이들이 회심하는 위대한 부흥운동이었다”며 “작은 기도

운동이 미국을 변화 시킨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 운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한다”고 도전했다.

강태광 목사는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준비와 겹쳐 이 기도회 준비가 다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확인해 다수의 기도팀들과, 여러 교회들의 관심으로 금번 기도회가 이루어졌다”고 기도대회 준비과정과 의미를 전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참석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김지수 권사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런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며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보기도 팀 연합 기도대회는 당초 분기 1회 기도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제1회



제1회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에서 도전하는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중보기도회 후, 다수의 참석자들이 월례 모임을 건의해 월례 모임으로 준비하고 있다. 팀 연합회는 건강한 중보기도 팀들을 더 발굴하고 더 많은 중보기도 팀들간의 연합을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회 내 건강한 중보기도팀이 세워지도록 돕고, 미국의 부흥과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또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뿌듯함’ 느끼는 그 날까지”

Seesaw Communities 창립 1주년 기념 행사 9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 Café Seesaw

LA 지역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해 온 시소 커뮤니티즈가 (Seesaw Communities, 소장 샘 윤) 창립 1주년을 맞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웨스트 코비나 소재 대형 야외 카페 Café Seesaw(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시소 커뮤니티즈는 21 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시소 커뮤니티즈는 2021년 5월, 12 명의 고교 졸업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커피 바리스타 직업 교육을 시작했고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의 장소와 설비 지원을 통해 같은 해 9월 Café Seesaw 1호점을 개업했다.

12 명의 1 차 직업 교육생 가운데 현재 9

명은 2 차 바리스타 교육과 손님 응대 교육을 마치고 웨스트 코비나에 위치한 선한청지기교회 내 Café Seesaw 를 그리고 HONEYMEE 세리토스 지점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성인 발달장애인 4 명이 신규 교육생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

시소 커뮤니티즈는 앞으로 △카페 시소 2호점과 3호점 등 추가 지점 개업 △'에스프레소 카드' 활용 다중 이용시설 내 커피 판매 △'제빵' 과 '온라인 스토어' 등 다양한 직업 교육 분야 확대 등 3 가지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샘 윤 소장은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은데, 비즈니스 업주는 훈련된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할 경우 정부의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창립 1주년 행사가 시소 커뮤니티즈의 사업 추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한인 분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인턴십 고용과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323)224-0224, info@thesc.us 웹사이트: www.thesc.us

김동욱 기자

청빙

캘리포니아 부에나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 여자전도사, 찬양대 파트타임 드럼 연주자들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1. 자격요건
 - a.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
 - b. 공인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
 - c.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2. 담당 사역
 - a. 교구 담당 및 교회 전반의 사역
3.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배경, 신앙간증, 은사, 장단점, 사역철학, 가족소개 등)
 - c.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 d. 추천서 2부
 - e. 최근 6개월 내 본인 설교 동영상 혹은 링크 2개

■ 파트타임 찬양대 드럼 연주자

1. 사역 일정

주일 예배: 1부(7:30), 2부(9:30), 3부(11:30)의 예배 반주(협의 가능)
 금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예배 반주
2. 제출 서류
 - a. 자기소개서
 - b. 신앙고백서

■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 여자전도사

1. 자격 요건
 - a. 정규 신학을 마친 분
 - b.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 c. 교구 및 심방의 5년 이상 사역 경험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은사, 사역철학, 심방 및 교구 사역 경험, 앞으로의 사역 각오, 가족소개)
 - c. 최종학력 증명서

<서류 제출>

kogh@thanksgivingchurch.com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보내주시고, 서류 접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청빙 절차 면접은 지원 마감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마감은 2022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

교회 웹사이트: www.Thanksgivingchurch.com
 교회 주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담당자: 고귀한 목사 (714-521-0991)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평] '미주 남침례회 한인 교회사 1956-2021'

미주 한인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회 소속으로 1956년 미국에 첫 교회가 세워진 이래 973개의 교회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미국 남침례회(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는 미국 전체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1,50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다. 약 5만개 교회에서 협동선교비를 모아 약 3,600명의 해외 선교사와 2,200명의 국내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와 국내 선교사에 수백 명의 한인선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6개 신학교에 2만 5천명의 신학생 중 1,260명이 한인 신학생이다.

남침례회의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성경공부는 정평이 나있다. 가장 우선되는 선교 전략은 교회 개척이다. 미국 사회와 기독교 커뮤니티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빌리 그레함 목사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 약 25만 명의 사역자들이 있다. 미국 내 약 60개의 기독교 대학교들이 설립되도록 초석이 되었다.

한국에는 6.25사변중인 1951년 선교사를 파송하여 부산침례병원과 대전 침례신학교 설립했다. 성경 교재 발간 및 교회 개척 등을 후원하여 한국의 기독교 침례회를 크게 도왔다. 기독교 침례회 출신들이 미국에 이주해와 교회 개척과 목회에 일익을 하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미주 한인 침례교회의 역사적 기록을 모아 교회사 발간을 기도해왔다. 오랜 숙원 사업이 열매를 맺어 금년 6월 하나님의 은혜로 발간되었다. 그간 교회사 발간을 위해 역사편찬위원회(강승수, 김광섭, 김영하, 김종환, 박진하, 허중수)가 구성되었고, 허중수 목사가 편찬위원장 및 집필을 맡아 귀중한 문헌이 나오게 되었다. 읽어보니 자료 수집에 고심했을 뿐 아니라 인터뷰 방식도 많이 활용했다. 미주 지역이 넓어 6명의 편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였다. 내용의 고증, 정확성 등 내용 확인에 28분의 감수위원들이 수고했다.

무엇보다도 딱딱한 역사 교과서가 아닌 이야기식으로 읽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요 단출판사가 품위 있고 산뜻한 디자인과 큰 지면을 사용했다. 역사적 기록이 될 흑백 사

진 및 이해가 쉬운 총회의 각종 도표, 관련 근거 등 375페이지를 잘 꾸몄다. 내용을 읽다 보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과 전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 개척사들이 공개되어 흥미롭게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서론에서 "우리의 과거가 지금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라고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세 가지 초점으로 '미주 한인 침례교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고, 무엇을 믿고 행하며, 직면한 도전과 가능성은 무엇인가?' 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었다. 끝부분에서 제언을 통해 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제1장 태동기(1956-1970)에서는 미주 침례교회가 1956년 워싱턴 한인침례교회를 개척한 김창순박사를 첫 한인 침례교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57년에 남침례회 국내선교부 선교사인 김동명(안이숙 사모)목사가 개척한 LA 침례교회(남가주 새누리 교회로 개명)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교회의 역할로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교회근처인 올림픽대로에 모이기 시작하여 한인 타운이 형성되었다.

제2장 형성기(1971-1981)에는 처음으로 연합회를 만들었다. 이름을 '북미 한인 침례회 교역자 협의회'로 불렀다. 남침례회의 국내부의 문대연 목사의 역할이 많아 1971년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개척되었고 많은 교회 개척을 선도했다. 형성기 동안에 한국에서 목회 경험이 있는 사역자들과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이민 옴으로 1976년까지 50개로 성장한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교회가 개척되어 1982년에는 203개로 급성장한다.

제3장 성장기(1982-1993)로 연합회 명칭이 '교역자 협의회'가 아닌 '교회 협의회'로 바뀌어 '북미남침례회 한인 교회 협의회'로 개명된다. 1970-1980년대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교회부흥으로 급격한 부흥집회로 기독교인수가 1,200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이 기간 중 대형집회로 빌리그레함전도집회(1973), Expo (1974), Holy Assembly (1977), World Evangelization Cru-



윤덕환 선교사 (미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은퇴)

sade (1980),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1984), 세계복음화 대회(1988)등 대규모 전도대회가 열리고 기독교인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미국 내 이민법이 1965년에 개정되어 미국으로 오는 한인 이민자가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이민자와 함께 미주에도 퍼져 한인 침례교회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제4장 성숙기(1994-2004)에는 연합회 명칭을 '교회협의회'에서 '교회 총회'로 개명하여 '북미 남침례회 한인 교회총회'가 된다. '성경무오성'에 근간을 둔 남침례회 보수 개혁운동이 일어나 신학 및 신앙의 보수주의에서 멀어진 교단분위기를 정화하였다. 개혁의 완성은 2000년에 발표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BFM 2000)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는 기존의 고백문(예, 1963년 판 BFM)에 담긴 신정통주의의 색채를 수정하고 개혁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 후 남침례교단은 성장세를 보이거나 타 교단은 하락세를 보인다.

이주현/이계월 선교사가 1993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피살되어 순교한다. 이는 한인으로 최초의 순교였고 7면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5장 안정기(2005-2021) 남미의 한인 침례교회들이 가입함에 따라 명칭을 '미주 남침례회 한인 교회 총회'로 개명한다. 유급 전담 총무직이 신설되고 인수인계에서 논쟁이 있었다. 총회 사무실과 총무의 사택을 겸한 2층 건물로 달라스 지역에 마련되었다.

결론에서 직면한 도전문제로 '성장의 정체'를 거론했다. 또한 '한인 문화권안으로 고립'과 '교회 내부의 유교적 문화적 계급 의식'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2009년에 '호칭장로제도'를 받아들이고 2013년에는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했다. 따라서 회원 교회 중 일부가 두 가지를 허용하는 것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남침례회는 두 가지를 불허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제언으로 '세대 간의 신앙계승', '다문화권 선교와 역선교', '교회 재활성화'와 '지속적인 교회개척'을 들고 있다.

교회사는 좋은 점뿐 아니라 논쟁이 되었던 어두운 면도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개선할 의도로 기술했다. 바라기는 한인침례교회가 SBC(남침례회)에 속해 있음으로 교회가 영어로 번역되고 Lifeway에서 책이 출간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내슈빌에 있는 SBC 총회 산하 자료보존 도서관과 6개 신학원 및 영어권 사역자들에게 영어판이 배부되었으면 한다. 그간 발간된 한국침례교회사(허진, 2000)와 영미한 침례교회사(김승진, 2018)에 연장하여 미주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침례교 선교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책 읽기를 꼭 추천한다. 책값은 운송료 포함 20달러.

구입 문의 ynms2017@gmail.com (윤덕환 선교사)

윤덕환 선교사는 미국 남침례 국제선교부 동아시아 Emeritus 은퇴선교사(21년)다. 북미 침례 선교부 NAMB 선교사로 4년 간 교회 개척하고 Gateway 신학원 M Div. Southwestern 신학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갈렙 프로젝트로 개척교회와 선교사 후원 및 중보 기도사역을 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 제21대 남가주 연목회 회장 취임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

미주복음방송 사장인 이영선 목사가 제21대 남가주 연세목회자회(이하 연목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오는 19일(월) 오전 9시 30분 미주복음방송 공개

홀(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열리는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장근성 목사가 이임하고 이영선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영선 목사는 현재 미주복음방송 사장, 세계한인기독교연맹회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화그룹 이사, 남가주 밀알선교단 단장을 역임한바 있다.

연목회 회장 장근성 목사는 "남가주 연세목회자회에는 80여명의 연세대 출신 목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 든 것을 되돌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초대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슬퍼함에 서 회복과 기쁨으로'란 주제로 이일하 목사(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효남 목

사(Healthcare Chaplains Ministry Association•HCMA), 천진석 목사(살림교회)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진행 한다.

미주복음방송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취임식과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사전 등록은 전화 (714-484-1190)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해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3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환율변동)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통합전담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해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이찬수 목사 “이제 초신자들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해”

지난 5개월 간 주일 평균 출석은 3,242명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분당우리교회에 초신자가 많아서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 바꾸겠다”며 “이제 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11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29개 교회를 분립한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마친 이후 분당우리교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목사는 “(주일예배) 출석이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다음주부터 2달 반 간을 체크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목사님이 제게 자료 하나를 보내왔다. 그리고 주중에 더 자세한 자료 보내왔다”며 “파송예배가 드러진 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예배 평균 출석을 낸 것이었는데 3,242명”이

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구체적인 교회 분립 계획을 처음 공개했던 지난 2020년 2월 23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교회 분립의 결과로) 분당우리교회는 주일 출석 5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게 목표”라고 했었다.

이후 분당우리교회는 29개 교회를 분립하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펼쳤고, 올해 4월 10일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후 약 5개월 간의 분당우리교회 주일예배 평균 출석 교인수가 3,242명이라는 것.

이 목사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됐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인간적으로도 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 주부터 2달 반 동안 (주일예배 평균 출석 교인 수 체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29 교회 가 다 자립하고 정리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중직자들 순장 70~80프로, 교사 80프로, 청년리더 80프로가 다 파송을 받아 가



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1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영상 캡처

고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라며 “교회가 잘 안 움직인다. 모임도 잘 안 된다. 유치부 교사가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사 좀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해도 그 주에 2명이 딱 지원하는,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위

기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헌신하자, 그러면 ‘와~’ 자원하고, 교사 필요하다고 하면 ‘와~’ 자원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남아 충성하는 한 20~30프로의 헌신자들도 계시지만, 이제 예전의 그런 분당우리교회가 아닌 이것이 재료가 되어 제가 희망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생겼다. ‘분당우리교회에 초신자가 많아서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 바꾸겠다”며 “이제 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초신자들이 너무나 빨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빨리 성숙해 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제 모든 이 교회 시스템을 초신자 성장에 맞추길 원한다. 이 교회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포항의 비극 속 예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14살 아들 먼저 보낸 신앙인 어머니, 빈소서 입관예배

“분명 천국에서 다시 보고 다시 만나며, 다시 안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할 것입니다.”

8일 오후 경북 포항시의료원 장례식장. 제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14살 김모군의 입관예배가 드려졌다. 김군의 어머니가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빈소를 찾아 ‘천국소망’을 다시 전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14살 김모군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김군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담임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입관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모두 7명이 희생된 가운데, 이들 중 가장 어린 김군은 지난 6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생존했다. 김군은 어릴 적 오천제일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

입관예배에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한 박성렬 목사는 본문 13절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를 언급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그렇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에겐 천국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다. 다시 대면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소망”이라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의미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

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군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그는 부모님을 향해 ‘나 여기 있어, 영광의 나라에 있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만남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며 “김군이 지금 무엇을 바라겠나. 내 친구, 내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시고 슬픔을 이겨 승리를 바라보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

라”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을 김군의 가족들에게 부여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는 또 “주님만이 오직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천국소망을 주시고 (김군의) 부모님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예배 후 교회 여성도들은 흐느끼는 김군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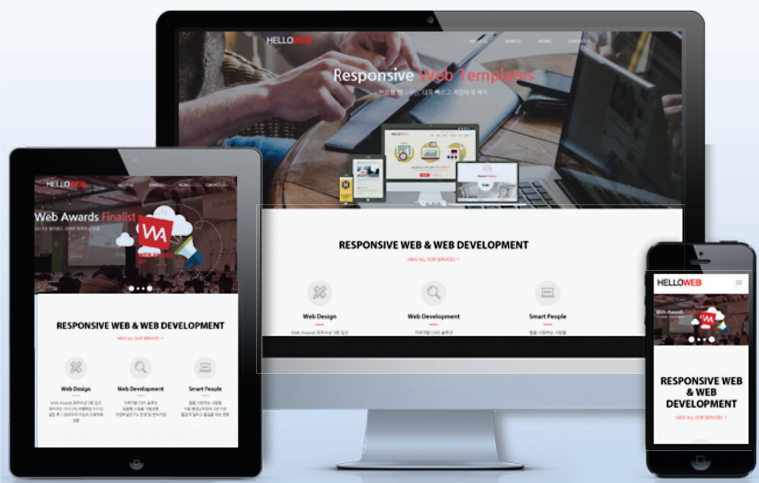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고령화, 한국교회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손의성 교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역 주문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른바 '시니어 목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세대 목회'가 중요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령 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다.

손의성 교수(배재대 기독교사회복지학과)는 29일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 트렌드 2023-한국교회를 말한다' 세미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령화의 거친 풍랑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손 교수가 언급한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여부나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며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고령자들을 말한다. 새로운 노화인식과 노년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손 교수는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높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 △기대수명보다는 건강수명을, 실제 연령보다는 주관적 연령인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과거의 은퇴 패러다임이 퇴색하고 어떤 형태로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시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역경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노후를 고민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자기주도적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 중심에 품는 교회의 조건으로 △고령친화적 교회 △시니어를 교회의 핵심 사역자로 삼는 교회 △시니어를 '임파워링' 하는 교회 △시니어의 여가시간을 자원화하는 교회를 꼽았다.

시니어를 '임파워링'한다는 것은 "시니어를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주도성과 자립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의 강점을 강화함으로써 시니어와 교회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 교수는 "몇 년 후 맞게 될 초고령사회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공적 변화이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적 변화가 요구되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노년문화를 주도하게 될 액티브 시니어를 임파워링 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사역이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가 만 65세 이상 고령 교인 2,045명(26개 교회)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대상자 2,045명 중

만 71세 이상 교인 1,115명의 절반(50.3%)은 교회 직분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교회에서 일을 할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0.2%,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39.6%,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13.5% 순이었다.

손 교수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도 발제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이나 사역에 참여할 의향이 약 40% 이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손 교수는 "따라서 교회는 고령 교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활동에 본인의 건강수준이나 역량 및 달란트에 따라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설교, 신학 없는 윤리·도덕적 교훈에 불과”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서창원 교수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Korea Institute for Reformed Preaching, 이하 설교연구원)이 30주년을 맞았다. 한국교회 강단 사역을 성경 중심으로 갱신하자는 목표로 1992년 설립된 설교연구원은 특히 한국교회에 청교도 사상을 보급해 왔다.

1993년 6월부터 영국 진리의깃발(Banner of Truth)과 제휴해 격월로 해당 잡지를 번역 발간해 청교도와 개혁주의 설교 및 양서를 보급하고, 매년 두 차례 외국 저명 학자를 초청해 종교다원주의와 복음주의가 확대되는 상황 가운데 실질적으로 설교 사역에 도움을 주고 개혁주의를 세우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

-35세 청년으로서 30년 전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신학이 아닌 '설교' 연구원인가요.

"지금도 대부분의 강단이 성경을 설교하지 않지만, 3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설교인데, 성경에 충실하지 못한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연구원을 창립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뿐 아니라 정통 신학에 충실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에는 신학이 별로 없습니다. 윤리·도덕적 교훈에 불과할 뿐,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신학과 신앙을 설교를 통해 확산시키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학 시절 영국에서 공부하며 느꼈던 일을 한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2년 동안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 뒤 연구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창원 교수. ©이대웅 기자

-30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교회 전체적 상황과 저희 설교연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측면에서는 설교가 전반적으로 나

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30년 전에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론과 시작을 설교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설교가 아닌 프로그램이나 구조 조정 등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국 다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개혁주의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설교의 유산을 물려받은 목회자들이 많아진 점에 대해, 연구원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30년 전 그런 설교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독교 생태계를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느낍니다. 목회자들 안에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교회성장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설교든 뭐든 교회성장의 도구로 생각할 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슬프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일 뿐,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따라 설교하면, 성장이 안 되나요.

"교회 성장을 숫자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법입니다. 진리를 계속 공급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진리를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신앙적 체험을 더 중요시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체험보다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사랑해야 하는데, 자주 극적 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환난이 닥치면 예배를 빠지고 신앙에서 돌이킵니다. 지속적 성숙을 이루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니,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포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한국교회 현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보고 느끼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따라 설교하고자 하는 개혁교회에서 '수적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이대웅 기자

‘교회판 우영우’ 가능? 담임목사 56% ‘장애인 채용 의향’

장애인을 사역자 혹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목회대이터연구소가 구독자 중 378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을 진행했다.

“교회의 사역자 및 직원 구인 시 장애인 채용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은 결과 (담임)목회자 절반 이상(56%)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그렇다’는 19%, ‘약간 그렇다’는 37%였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는 17%, ‘전혀 그렇지 않다’는 7%였다. ‘잘 모르겠다’도 20%에 달했다.

연구소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던졌다”며 설문 취지를 밝혔다.

송경호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오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10배 성장 기대한 교회,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 있어”

미 복음주의재정책임위원회, 교회개혁전략 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개혁에 있어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ECFA)는 교회개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교회개혁과 멀티사이팅의 새로운 국면’(The New Faces of Church Planting and Multisite-ing)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의 한 부분에서 연구원들은 교회가 향후 5년 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와 향후 5년 내 자신의 교회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소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교회는 전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교회보다 거의 10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10%의 ‘개혁 이후 연간 성장률’을 보고했으며, 성장을 기대하지 않은 응답자는 0.3%의 연간 성장률을 보고했다.

이 조사는 2천3백명 이상의 교회개혁자/창립목사와 390명에 가까운 멀티사이트 디렉터와 캠퍼스 목회자로 구성된 2천7백명

이상의 참가자에게 그들의 사역이 전염병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었고 성장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새로운 교회가 대규모 개혁전략을 시행하는 능력에 ‘일시적 하락’을 일으켰을 수 있다.

200명 이상 유입한 새로운 교회의 수치는 2019년 12%에서 2020년 7%로 떨어졌지만, 그 수치는 2021년 20%, 2022년 5월 17%로 반등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보다 설립 초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는 개혁 초기와 2020년 사이 평균 연간 출석 성장률이 5% 이상이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성장한 교회로 정의된다.

2022년 주간예배 출석자 수가 5백명 이상인 성장하는 교회는 개혁 당시 평균 32만2천 달러를 지출했지만, 2022년에는 해당 출석 규모를 가진 비성장 교회가 보고서에 평균을 기재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2022년 예배 출석 인원이 101명에서 200명 사이인 비성장 교회는 개혁 당시 평균 약 24만7천달러를 지출한 반면, 2022년 주간 예배가 최대 200명에 달하는 성장하는 교회는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의 예배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개혁 당시 약 14만1천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출석률이 51-100명인 비성장 교회는 개혁 당시 평균 22만달러를 지출했으며, 2022년 출석인원이 51-100명인 성장하는 교회는 개혁 당시 평균 10만달러를 지출했다.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행됐다. 3천 28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일한 교회, 북미 이외 지역의 설문조사 응답자, 비개신교 참가자, 답변이 너무 적은 설문조사 응답자 등을 제거해 그 숫자는 2천702명으로 줄었다.

이 연구에서 평가된 또 다른 요소는 목회자가 개혁 당시 풀타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교회출석률과의 상관관계다.

2022년 매주 500명 이상 출석하는 성장하는 교회(83%) 대다수는 창립 당시 목회자들에게 풀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비해 2022년 50-100명이 출석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55%와 출석자가 0-50명 사이인 성장하는 교회의 52%가 창립 이후 목회자들에게 풀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2022년 0-100명 사이의 비성장 교회 가운데 60%와 2022년 50-100명이 출석하는 비성장 교회의 42%가 창립 이후 목회자들에게 풀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출처에는 하나 이상의 지역교회(19%), 하나 이상의 교단, 네트워크 또는 사역(19%) 및 주요 지도자의 가계 수입 또는 저축(15%)이 포함된다. 이미경 기자

미 법원, ‘의사 조력자살’ 강요한 캘리포니아 법 시행 차단

미국 연방 법원이 의사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 의료 전문가에게 보조 과정에 참여하거나, 기록을 문서화하도록 강요한 캘리포니아의 법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페르난도 안레로차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조항(Health & Safety Code)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만 9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 기독교 의료 및 치과협회(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s, CMDA)와 이 단체의 회원 레슬리 코크레인 박사는 어떤 형태의 조력 자살 참여에도 반대하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양심적 보호를 철폐시킨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안레로차 판사는 원고의 ‘종교적 차별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해서는 동의했다.

안레로차 판사는 명령문에서 “해당 요구사항의 궁극적인 결과는 조력 자살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서 요구를 통해 참여를 거부하는 제공자들이 법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다”고 판단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주정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치 않는 조항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의료 기록에 개인의 요청 날짜 및 의료 제공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문제의 조항은 의사가 조력 자살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상, 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환자가 사망 약물을 요청한 날짜를 기록한 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구두 요청 기록은 두 번째 의사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CMDA와 코크레인 박사는 이 조항이 “(의료 전문가들이) 조력자살을 논의하고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종교 자유 옹호 법률단체 ‘자유 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6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금지 결정을 환영했다.

ADF 선임 고문인 케빈 테리어트는 성명에서 “의뢰인은 의료 행위에 대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의사 조력 자살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양심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우리는 법원이 미국 대법원의 ‘니플라 대 베세라(NIFLA v. Becerra)’ 판결에 따라 수정헌법 1조가 종교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5년 제리 브라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16년 발효된 ‘수명 종료 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주민들이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주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는 의사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양심 보호 수준을 낮추기로 한 상원 법안 380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올해 2월, CMDA와 코크레인은 새 법안이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 조력 자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해당 환자의 의료 기록을 문서화하도록 강제한다”라며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김유진 기자

힐송교회 사임 후 첫 강단 오른 휴스턴 목사

“실수와 실패가 유산을 규정하도록 두지 말라”

힐송교회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이 글로벌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지 5개월여 만에 연단에 올랐다.

휴스턴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크리스천페이스센터(Christian Faith Center)에서 “당신보다 오래가는 유산”(A Legacy That Outlasts You)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실수와 실패, 깨어짐이 유산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권면했다.

휴스턴은 “유산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일 뿐이다. 목적과 운명과 유산이 충돌할 때, 그것은 불붙는 힘과 같다”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접붙일 때 유산이 생겨난다. 이는 우리가 삶을 사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 나의 실수와 넘어짐, 여기서의 실패, 거기서의 깨어짐, 여기 내가 찢겨 버려졌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유산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산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단언했다.

휴스턴은 인생의 좌절과 실패가 누군가의 유산을 함부로 정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산을 기록하는 데 평생이 걸릴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훼손할 수 있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유산이란 어느 정도의 우여곡절 없이는 결코 올 수 없는 것”이



힐송교회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이 8월 22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크리스천페이스센터(Christian Faith Center)에서 연설하고 있다. ©크리스천페이스센터 유튜브 캡처

라고 했다.

그는 성경 속 다윗 왕을 예로 들어, “전쟁에서 결코 패한 적이 없던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그의 유산을 더럽혔을 때 육체와의 싸움에서 졌다”고 말했다.

휴스턴은 “그러나 나는 다윗의 유산이 거기서 결정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를 깎아내리지 않으셨다”면서 “다윗은 자신 안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람을 혹독하게 대한다. ‘취소 문화’(Cancel culture)는 당신을 쓸어버릴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의 트롤(인터넷상에서 고의로 공격

적인 내용을 올려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당신을 깎아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경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며,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스턴이 “올해로 저는 68세지만, 제 안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자, 청중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유산을 통해 비판자들보다 오래갈 수 있고, 폄하하는 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실수와 실패보다 오래 살게 될 것”이라며 “유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러나 말했듯이, 유산에는 항상 몇 번의 우여곡절과 예상치 못한 일들과 좌절이 뒤따른다”고 당부했다.

휴스턴은 과거 두 명의 여성이 제기한 성추문 혐의가 보도되자 지난 3월 교회에서 완전히 사임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친의 ‘아동 성학대’를 은폐한 혐의를 받게 되자, 1983년 자신이 설립한 글로벌 교회의 이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혐의 사실들을 모두 부인했다.

휴스턴은 앞서 2018년 9월, 힐송교회를 기존에 가입했던 호주기독교교회(ACC)에서 탈퇴한 후 독립 교단으로 창설했다. 이미 글로벌 교회가 된 힐송을 호주 교회에 국한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1983년 이래 힐송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교회’(Assemblies of God, AOG)에 속했다.

당시 힐송교회는 전 세계 24개 국가에 123개의 캠퍼스를 개척하고 263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만큼 교세가 컸다. 그러나 2020년 11월 뉴욕 힐송교회 칼 렌츠(Carl Lentz) 목사가 스캔들과 리더십 문제로 해임된 후, 휴스턴 목사의 성 추문까지 겹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달 대형 회계법인인 언스트&영(Ernst & Young)이 공개한 힐송교회의 연례 재무제표에 따르면, 주로 현금에서 나오는 호주 힐송의 수입은 약 1,100만 달러 감소했다.

호주 힐송교회 총책임자인 조지 아가자니안은 보고서에서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성교 라디오방송 AM 1560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 금), 오전 6:30(토)
중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여정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 법원, 캘리포니아 교육구에 “반동성애 학생 클럽 허용하라” 판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동성애를 반대 하는 기독교 운동선수 동아리를 학군이 공식 승인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파이어나어 고등학교에서 공식 승인을 되찾기 위해 소를 제기한 ‘기독교 운동선수 펠로십’(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FCA)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스 리 판사는 다수 의견문에서 산호세 통합 교육구가 2019년까지 공식 학생 동아리였던 FCA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구는 해당 클럽의 ‘성적 순결’ 및 ‘신앙’ 선언문이 학군의 비차별적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리 판사는 교육구가 성 정체성과 인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한 다른 학생 동아리는 승인한 사례를 지적했다.

리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국 정부는 종교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종교 집단을 계속적인 집단보다 더 부당하게 대하면 안 된다”라며 “하지만 학군은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밝혔다.

동아리의 성적 순결 선언문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성적 표현의 적절한 장소는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한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서약”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다.

또 신앙 선언문에는 “성적 친밀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 안에서만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가정의 기초며,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로 정하셨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관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FCA는 산호세 통합 교육구에 속한 고등학교 3곳에서 10년 넘게 공식적인 학생 동아리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파이어나어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피터 글레서는 신앙 및 성적 순결 선언문 내용에서 “성경은 결혼 외의 성관계와 동성애 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또 “결혼 이외의 이성애적 성관계나 어떠한 동성애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반대했다.

글레서는 즉시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발송했고, 학교장을 포함한 교내 지도자 위원회는 논의 끝에 FCA의 공식 학교 동아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FCA는 캠퍼스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교직원, 학교 신문사 및 학생들의 적대감에 직면해야 했다. 학교 신문은 FCA가 여는 모임마다 사사건건 촬영을 시도했고, 학생 단체들은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또 글레서를 포함한 일부 학교 교사들도 동아리 모임을 금지하는데 앞장섰다.

결국 FCA는 수정헌법 제1조 및 14조 평등 보호 조항이 보장하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자유로운 종교 활동 권리를 침해했다며 교육구에 재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산호세 교육구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고, FCA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했다. 제9항소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인 후 재심에서 하급법원에 FCA를 공식 학생 동아리로 복원할 것을 명령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사립 기독교 학교, 교육구의 종교적 차별로 문 닫을 위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립 기독교 학교가 지역 교육구의 일방적인 건물 폐쇄 결정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벤투라 통합교육구(Ventura Unified School District, VUSD)는 지난 19일 벤투라카운티 크리스천스쿨(Ventura County Christian School, VCCS)의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학교측 변호사인 론 바미에는 CP에 “VUSD 관계자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3일 전, VCCS가 있는 워싱턴 스쿨(Washington School)의 부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학교는 황급히 개학을 연기했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지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100년 된 학교 건물이 “자연재해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미에는 그러나 “VUSD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다”며 “배후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바미에는 교육구가 학교에 보낸 새 임대차 계약서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가 기독교 교육 교사를 고용하거나, 기독교 기반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당시 학교는 계약서의 특정 문구에 대해 “당황스러웠지만 오해일거라 믿었다”며 교육구에 해당 문장을 임대차 계약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며칠 후, 교육구는 VCCS에 학교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바미에는 “VUSD는 VCCS를 건물 밖으로 가두고, 계속 건물을 점령할 경우 무단 침입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VCCS는 20년간 학교 건물을 문제없이 임대해왔다. VUSD는 새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 VCCS에 또 다른 안전 분석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벤투라카운티 크리스천스쿨(VCCS) © 벤투라카운티 통합 교육구

고 해당 업체는 학교가 안전하다고 알렸다.

그는 “VCCS는 VUSD의 동기가 단순히 금전적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신앙을 공유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정부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VUSD와 관계자들의 행동과 진술 중 일부가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바미에는 VUSD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저조한 공립학교 등록률을 개선하고자 VCCS를 폐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 부지를 이용해 수십 가구의 주택을 저렴하게 짓는 등 교육구에 숨겨둔 지가 있다고 바미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VUSD 교육감 안토니오 카스트로는 지난주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고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이상 건물에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없다”면서 학교 건물에 대한 폐쇄 결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VCCS는 유치원(Kindergarten) 과정부터 12학년(한국 기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반 과목 외에도, 초교과적 기독교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CP에 따르면 양 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는 VCCS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 중이며 지난 4일 기준 1만 7천 달러가 모금됐다.

김유진 기자

한국 망명 거부당한 中 ‘메이 플라워’ 교인들, 이제는 태국행



Jeju "Mayflower Church" denied asylum, faces potential repatriation to China and persecution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른비언약교회 제공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메이 플라워’ 교인들이 수차례 한국 망명이 거절되자 태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떠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 심전성 개혁교회(Shenzhen Holy Reformed house church) 교인 60여 명은 2019년 중국 남부 선전시를 탈출한 뒤 한국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최근 광주 고등법원은 중국 기독교인들의 최종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이 교회 관공목 목사가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교인 전원은 태국 수도 방콕에 있는 유엔 난민 사무소를 방문해 난민 지위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인들은 미 외교부에 미국에서의 정착을 모색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 목사는 Wsj에 “우리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떤 신분도 확보할 수 없으며, 미국도 우리를 재정착시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메이 플라워 교인들은 중국 여권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해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을 호소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15일 동안만 유효한 관광 비자를 받았으며, 다른 교인들은 만료가 임박한 비자의 연장을 요청했다.

교인들이 방콕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가 만료되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

목사는 “위험하지만 이것은 기회다. 제주도에 있었다면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명 신청을 하는 동안 교인들은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었으나, 몇 년이 걸릴지 모를 항소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한국 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고 그는 밝혔다.

WSJ은 교인들이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중국 관리들로부터 ‘국가 안보법 위반’을 주장하는 협박 전화를 수차례 받았으며, 중국 당국은 교인들의 친척들을 심문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중국 당국은 심전성 개혁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자주 박해했고, 이는 2019년 말 교인들의 중국 탈출로 이어졌다. 2021년 6월 교인들은 미국에 재정착하기를 원했지만, 망명 신청이 수락될지 확실하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미국의 단체 차이나이드(ChinaAid)는 “기독교 교인들이 제주도의 작은 임대주택에 살면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때문에 (이들의) 망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이드 회장이자 설립자인 밥 푸 목사는 지난 6월 열린 ‘2022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IRF Summit)’에 참석해 “중국 공산당이 기술력을 동원하여 교회 목사와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시도했다”면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제주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을 배신했다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영국 아일랜드서 ‘성중립 대명사 사용 거부’ 교사 징역형

교사 측 “하나님 부인하느니 교도소에 머물 것”



윌슨병원학교 에녹 버크(Enoch Burke) 교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일랜드 웨스트미스(Westmeath) 카운티에 위치한 윌슨병원학교(Wilson's Hospital School) 교사인 에녹 버크(Enoch Burke) 씨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그들’이라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후 정학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버크에게 학교에 가거나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학교에 나왔고, 최근 체포돼 더블린에 있는 마운트조이 교도소로 이송됐다.

버크씨는 9일 판사에게 “앞으로 100년 동안 매일 매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후 학교 측에 추가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 비용도 그가 지불하게 됐다.

그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교도소에서 나가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인해야 한다면, 난 결코 마운트조이 교도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운트조이 교도소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교도소 밖에서 이교도가 되어 트랜스젠더리즘을 존중하며 살 수 있다. 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안다”고 했다.

아울러 “나의 신앙이 날 그곳으로 인도했고,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환어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11:00 화-토 오후 7:30 주일영양회: 오후 7:3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새벽예배: 오후 6:00

2331 W. Crenshaw Ave., Fullerton, CA 92833
195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유적부 오전 11:00

유적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적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적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환어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인양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김한오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몰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환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재도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설교일: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69**

“찰스 밴 앵겐의 개혁하는 선교신학을 읽고”

요즘 필자의 큰 기쁨 중 하나는 선교학 공부를 바쁜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과 미국의 현존하는 선교 신학자 찰스 밴 앵겐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의 연세에도 강의마다 뽀아내시는 열정과 깊은 영성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동역자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다.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지 장기 선교사들이다. 그들 중 우크라이나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과 유럽 선교의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도 갖는다.

찰스 밴 앵겐 교수가 저술한 책들이 많이 번역돼 있으나 오늘은 그의 저서 “개혁하는 선교 신학”을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풀러신학대학교 선교 신학대학원 원장을 거쳐 은퇴하였다. 그의 제자 중 임윤택 박사, 서경란 박사가 공동으로 이 책을 번역하였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읽었으면 더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을 했다. 선교적 교회로 목회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필독을 권하고 싶다. 물론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는 일반 성도들도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 자신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선교 신학의 원천, 의미, 방법론, 그리고 선교의 목표를 정하게 도왔다. 그는 선교사 자녀로, 선교지인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도 부모의 뒤를 이어 멕시코 선교사가 되어 오랜 세월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배경을 그의 저술의 발판으로 삼았다. 특히 그의 관심은 선교지에서 피 선교자가 되어 선교사들의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시각이었다. 원주민들을 현지 선교사들의 가장 귀한 동역자로 보는 것이었다. 선교지에서의 건강한 개척교회는 선교 현지의 원주민들 가운데 사역자가 배출되고, 그들이 다른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열방에 세우게 하는 선교의 열매 맺기를 선교 신학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선교지는 교차문화의 현장이라는 것이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한 선교를 할 수 없다 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많이 반성하였다. 필자는 현지인들의 문화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과 살면서 겪었던 갈등과 상처들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서로의 문화 양식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오해해서 일어난 일들도 생각이 났다. 이 책은 그런 교차문화 가운데서 일어서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해 주는 책이다. 선교 신학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해석도 매우 신비하다. 사도바울의 대부분의 표현이 선교 현장 속에서 다룬 문화권에서 쓰여진 것이기에 현장 선교사가 접하는 성경의 이해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저자가 강조한 선교 신학 방법론에서의 문맥화에 대한 서술은 기독교인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요건이다. 의사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인종들이 그들의 문화를 모두 동원한 가운데 서로에게 전해야 하고 전달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교차문화권에서의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지의 영혼들과의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와 사귄 속에서 서로의 문화와 환경 등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깊은 사랑의 사귄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가 새롭게 든다. 비단 이 책은 타 문화권 속에서의 선교사들의 사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희망을 느낀다.

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아시아의 구석에 마치 은둔해 있는 것 같은 나라 조지아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다. 가면서 밴 앵겐 교수의 또 다른 책인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챙겼다. 돌아오는 날엔 더 큰 희망을 안고 올 것을 기대한다.

스탕달(Stendhal)은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7세 때 어머니를 잃은 그는 애정을 주지 않는 완고한 아버지, 위선적이고 까다로운 숙모 등의 돌봄 속에서 갈등 많은 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외가 어른들로부터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랐는데, 특히 외할아버지로부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을 영향 받았습니다.

스탕달은 16세 때 나폴레옹 군에 입대하여 군의 고관인 친척 도움으로 이탈리아 원정대에 합류합니다. 17세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밀라노를 경험하는데 우울했던 젊은 날 끝에 새로운 세상 이탈리아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탕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이탈리아에서 보내며 이탈리아를 제 2의 고향으로 여겼고 자신의 묘비에 자신을 ‘밀라노인’이라고 표기하도록 주문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후에 군대를 떠난 스탕달은 문학에 몰입합니다. 그는 사실주의 문학의 시조로 프랑스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묘비에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라고 새길 만큼 그는 일생동안 열심히 썼고,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알려진 작품으로는 <적과 흑> <아르망스> <파름의 수도원> <연애론> 등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 마음의 움직임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 시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한 그는 발자크와 함께 리얼리즘(寫實主義) 개척자로 알려졌습니다.

스탕달은 살아서는 거의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의 예언대로 사후 100년이 지난 후부터 그의 문학은 큰 주목을 받습니다. 스탕달의 대표작 <적과 흑>은 뛰어난 사실주의 소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스탕달은 이 작품에서 섬세하게 주인공 윌리엄의 야망과 과격적 사랑은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적과 흑>의 주인공 윌리엄 소렐은 제재소집 셋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도움 되지 않게 일도 못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윌리엄을 싫어합니다. 윌리엄은 신분 상승의 길은 군인과 사제로 생각하고, 자신은 사제로 출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출세하기 위해 라틴어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에게 기회가 옵니다. 윌리엄은 탁월한 라틴어 실력 때문에 셸랑 신부의 보호와 총애를 받

스탕달의 “적과 흑”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았습니다. 셸랑 신부는 윌리엄을 베리에르의 레날 시장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해줍니다. 윌리엄은 베리에르 시장인 레날씨 집에 들어가 시골 부르주아의 세계로 진출합니다.

윌리엄은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부자에 대한 적개심과 오해로 레날 부인을 유혹합니다. 레날씨의 집에서 지내는 윌리엄 소렐의 삶은 레날 부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야망에 얽힌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시장 부인은 윌리엄의 섬세함과 외모에 마음을 빼앗겨 밀회를 즐깁니다.

반면 레날 부인은 진심으로 윌리엄을 사랑합니다. 밀회에 빠진 레날 부인의 심리를 묘사한 장면은 리얼리즘의 원전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그녀는 후회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 지난 밤 윌리엄이 자기 방에 왔을 때 그 행동을 나무랐던 걸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때문에 윌리엄이 오늘밤에는 안 올까봐 떨고 있었다. 그 두 시간의 기다림이 이백 년과 같았다.”

귀족에 대한 도발로 시작된 밀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레날 부인의 순진함과 진심을 알게 된 윌리엄도 레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을 사모하던 하녀에게 둘의 사랑은 발각됐고, 윌리엄은 시장 집에서 쫓겨납니다.

시장 집을 나온 윌리엄은 다른 신부의 소개로 대 귀족인 드 라몰 후작의 비서로 취직합니다. 라몰 후작에게는 딸 ‘마틸드’가 있었는데 그녀는 귀족 청년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미모의 규수였습니다. 윌리엄은 마틸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마틸드도 윌리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윌리엄 아이를 갖습니다. 딸이 아이를 갖자 둘 사이를 반대하던 후작도 승낙합니다. 윌리엄이 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후작 집으로 레날 부인의 편지가 도착하고 윌리엄의 지난날의 행실들이 날날이 까발

려집니다. 결국 윌리엄과 마틸드의 결혼은 무산됩니다. 이에 격분한 윌리엄은 레날 부인을 찾아가 레날 부인을 향해 권총을 발사합니다. 부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윌리엄은 체포 수감됩니다.

감옥에서 윌리엄은 레날 부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도 그녀임을 깨닫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합니다. 살인을 시도한 죄에 귀족을 농락한 과실죄까지 더해져 단두대에서 사형당합니다. 마틸드가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옥바라지를 했던 레날 부인은 윌리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숨을 거둡니다.

소설 <적과 흑>은 당시 유럽의 계급제도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당시 젊은이들의 도전과 이픔을 도전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적’은 붉은 색의 군복을 의미하며 군인으로 출세를 말하고 ‘흑’은 성직자의 성의를 의미하며 성직자로 출세를 말합니다.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적과 흑’은 유럽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성직도 군인도 당시 젊은이들의 신분 상승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로 소설 <적과 흑>은 윌리엄의 도전과 좌절, 탈선 그리고 몰락을 통해서 인간의 야망과 탐욕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탐욕적 신분상승의 꿈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본 작품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부(성직자)의 길을 걸으려 했던 윌리엄의 탈선과 몰락은 세속화된 종교의 타락상을 발칙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적과 흑>은 윌리엄의 탈선과 비극적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사랑을 수단화 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사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요 보상입니다. 윌리엄의 비극적 인생의 시초는 증오심으로 시작한 레날 부인과의 사랑입니다.

넷째로 <적과 흑>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합리화해도 ‘죄는 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윌리엄의 꿈이 소중하고 그의 노력이 가상해도 탈선은 탈선입니다. 사회적 계급제도가 불합리하고 악한 귀족들이 있어도 정당하지 않은 반항이나 복수는 옳지 않습니다. 죄는 죄이고 탈선은 탈선입니다. 개인적으로 <적과 흑>을 진부한 권선징악의 소설로 이해하지 않고 스탕달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성과 시대에 대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신입생 모집</p> <p>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p>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p> <p>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Tel: 562-903-4705</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ACSI, SACS 인증 전방위적 온라인 교육(Zoom, Canvas, Blackboard)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p> <p>총장: 이상훈 박사</p> <p>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SAC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p> <p>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p>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p> <p>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p> <p>www.gbtsi.org</p> <p>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p> <p>“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p>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p>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하늘문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7-1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지리적으로 빌라델비아는 터키 서남부에 있는 사데 교회에서 동남부로 100리쯤 떨어진 곳에 큰 산 중턱 아래쪽 평지에 BC150년 전에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골짜기마다 있는 도시의 중심지로 건설을 했고 포도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도시로 만들었는데도 헬라 문명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이 지역이 헬라문명권으로 엄청난 문화 선진(先進)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라는 율법적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중에 누가 세웠는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짐작하기는 정통한 진리를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사도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복음의 체계적인 교훈도 가르치기 어려웠겠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불같은 역사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미 유대교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기도 하셨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여기고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헛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핍박함으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문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불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늘나라가 개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55-60에서 보면 스테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문을 열어 그가 순교하면 맞이하시기를 위하여 보좌 후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문이 열릴 때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와 같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신도들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의 교훈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잡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1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라는 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한 말은 어느 유능한 목사님이 세워 가르친 교회가 아니라 어느 평신도에 의해 가꾸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유대교의 집단이 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나라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덩달아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소망 가꾸자고 믿음 생활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예수님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전한 생각과 충성스러운 생활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를 모을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인격자로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데 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을 받은 자들 몇 사람을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박해당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서 어떠한 환란과 핍박,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움으로 기피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시험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지는 데 이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변절자도 생겨나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도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라, 데살로니가후서, 요한계

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천국에 갈 믿음을 가졌고 면류관 또한 받을 상태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둥은 그 건물을 받히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인과 새 예루살렘(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보배로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사인, 예수님의 새 이름인 만왕의 왕의 사인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보낸 편지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공적 편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모아 놓은 곳입니다. 즉 하늘나라 가기 위한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죄악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불러내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소망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1-7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기하급수적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을 제쳐놓고...(중략)...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책과 직분이 생겨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거나 구원 얻기 위하여 영적 지도에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교회)라고 해서 성도 상호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구제, 봉사, 전도하는 일에 목회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력 봉사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의 봉사직제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가 똑같은 처리권을 가졌다고 장로교 헌법에 되어있지만 단 하나, 목사에게는 강도(講道)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도 목사에게는 양 떼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중직으로 세움 받은 장로라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목자로부터 영적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회 제자들 사이에 신학적 신앙노선이 일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영적 체질신앙이 일치하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협력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급속도로 부흥,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하늘 문을 열어 놓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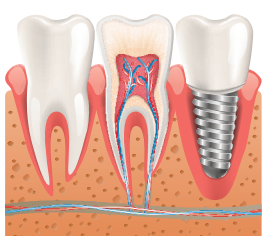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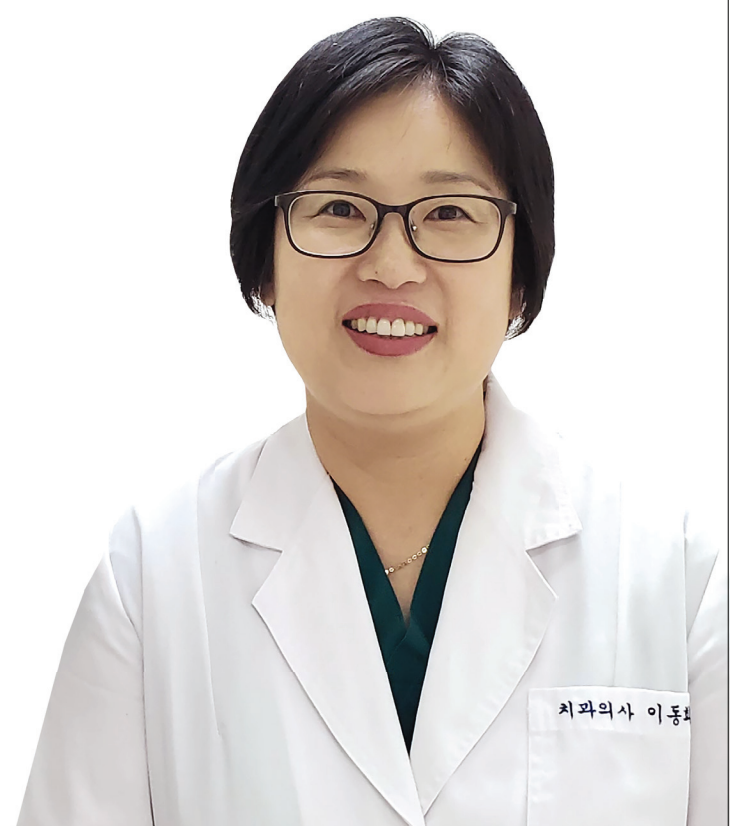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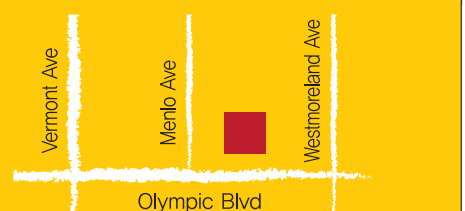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강준민 칼럼

소속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미지(the image of God)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어릴 적, 솜바꼭질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소속감, 자부감, 자신감, 그리고 사명감이란 기둥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이 소속감이라는 기둥입니다. 그 이유는 소속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자부감, 자신감, 그리고 사명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파귀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요 15:19).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고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가 소속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제공해 주는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제공해 주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소속감에서 자부감이 나옵니다. 자부감은 가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부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부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자신이 섬기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을 죄와 유혹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잘 가꿉니다.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 받고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소속감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자신감은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전한 자신감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인생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또한 누가 능력

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소속감에서 사명감이 나옵니다. 사명감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공동체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소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7-①

메타버스 시대 교육의 변화

4차 혁명 시대 MZ 세대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 시대에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4차 혁명과 메타버스 시대 교육 분야에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2000년 전후 온라인 학습인 e러닝을 통해 열렸는데요. 그 뒤 대규모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MOOC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이제는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미래학교〉, 책에서는 이미 온라인 무료 플랫폼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누구나 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요. 세계적 기업들이 이런 과정 이수자 중 인재 확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신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

확보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무크인 코세라는 29개국 161개 대학·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2,600개 안팎의 온라인 강의 코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수강한 인원만 2,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교육에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쿨 메타버스〉, 박기현, 김상균 공저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교육은 현재 수준의 진단 및 평가 → 학습경로 피드백 → 피델리티(fidelity, 학생의 학습경로 모니터링) 단계를 거친다. 학생의 현재 학습성취 수준을 진단, 평가한 뒤, 이에 대한 학습경로를 피드백해 주고, 제시한 학습경로를 학생이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3단계 과정은 AI로 완벽하게 구현 가능한 영역일 것처럼 보이지만 진단 및 평가 부분이 구멍이다.”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캠퍼스를 메타버스로 옮기는 것을 넘어서는 시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를 오프라

인의 대체제 그 이상으로 이해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공간에 차려지는 대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메타버스와 대학을 결합한 ‘메타버시티 Metaverse+University’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메타버시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확장성인데요.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학생이 가상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스쿨, 싱글레리티대학, 에콜 42 등은 혁신적인 미래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 인 비대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자체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스쿨은 2020년 기준 1%도 되지 않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 중 하나가 되었는데, 학교 주소지는 있지만,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년간 7개 도시(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서울,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독일의 베를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영국의 런던, 대만의 타이베이)를 캠퍼스 삼아 누비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가는 나라마다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론을 습득하고, 토론하게 하고, 현장 업무를 익히게 합니다. (계속)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자원봉사자 모집

WE BRIDGE CONFERENCE

9/26(월)-28(수) | 토렌스조은교회

- 대상: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가능
- 시간: 하루 혹은 반나절도 가능
- 봉사: 컨퍼런스 세팅, 안내, 식사, 간식, 숙박 등 다양한 곳에서 컨퍼런스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
- 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 213-434-1170



진유철 칼럼

바울아 네가 예수께 미쳤도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일반적으로 미쳤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해양운송수단이 발전하여 전 세계가 연결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보는 하늘이지만 하늘에 미친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비행기로 한 나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이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에 미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정신세계는 풍요를 누립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

은 돈 버는 일에, 건강이나 운동에, 심지어는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쾌락에 미쳐서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뛰어난 목회자요 선교사이며 신학자였던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새롭게 유대총독으로 부임해온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를 증거 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신약성경의 반 정도가 기록되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이전의 사울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안 되고, 가치관의 변화도 체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사고방식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

일하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미치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 델에스페에서 사역할 때, 위험한 밤길을 뚫고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향해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세상청년들이 당연히 가졌던 술과 노름과 쾌락의 가치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또 교회의 기동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쌍파울로에서는 틈만 나면 제자훈련의 성경을 암송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순복음 교인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대부분 사업과 직장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간다면, 그래서 편리함을 쫓고 세상의 쉬운 길, 넓은 길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다름’이 나오겠습니까?

니까? 어떤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일은 세상이 볼 때는 미친 듯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를 향해 뭔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진실한 섬김과 예배시간마다 열심히 부르짖어 합심기도 하는 신앙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다녀온 교회가 연이어 멕시코단기선교를 갔다 오고, 이제 페루 단기선교와 알래스카 교회당 리모델링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며 편리함과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은 예수님께 미친 교회 아니냐고 말합니다. 진리가 진리 되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미친 교회와 성도라는 소리를 바울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친일 행각



김 인 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일제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자 장로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일제에 무릎 꿇고 굴복했다. 1943년 5월에 성결교회는 재림사상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200여 명의 남녀 교직자와 장로, 100여 명의 남녀 제자들이 검거되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스로 해산하고 말았다.

“우리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 성결회는 조선에 포교 이래 삼십 오륙년, 그간 장기에 걸쳐서 미국인 선교사의 지도를 받은 것 뿐 아니라 재정적 기초도 역시 미국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부지불식간 적 미·영 사상의 포로가 되어 지금까지도 그 잔재를 말할기 어려움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다. 더구나 교리로서 신생(新生) 성결(聖潔) 신유(神癒) 재림(再臨)의 4중 복음을 고조하여 왔는데 취중(就中) 재림의 항은 그리스도가 가까운 장래 육체로서 지

상에 재림하여 유대인을 모으고 건국하여 그 양이 될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전 세계 각국의 주권자로부터 그 통치권을 섭정하여 이를 통치한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국체의 본의에 적합하지 못할 뿐더러, 신에 대하여도 성서의 해석에 기초한 여호와 이외에 신이 없다는 사상을 선포하여 온 것은 현대 우리들의 심경으로 보면 실로 국민사상을 혼미에 빠뜨린 것으로 그 죄를 통감하는 바이다.……필경 성서는 그 기지(基地)를 유대사상에 두어 우리 국체의 본의에 배반하는 기다적(畿多的)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성서 자체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면 완전한 국민적 종교로서 성립하지 못할 것으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들은 장년월간(長年月間) 부지불식중에 그와 같은 불온 포교하여 온 책임을 통감하고 이금(爾今) 맹서하여 결전 하 황국신민의 자격을 실추시키지 않을 것을 기함.”

이상의 글 속에서 선교열이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성결교회가 재림사상에 걸려 일제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이에 굴복한 교회 지도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 해 말 안식교회도 일제에 의해 해산될 때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 교회는 미국 선교사의 손에 의하여 창립되었으며 이래(爾來) 40여 년간 직접 그 지도를 받아 왔음과 동시에 그 재정적 기초도 오로지 미국 선교사에 의존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적 미·영적 사상에 감염되어 그들 양이(洋夷)의 풍속 습관이 반 신앙화 되어 동양 고유의 순풍미속(醇風美俗)은 점차 파괴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양이의 풍습을 칭찬하고 나아가 적 미·영 사상의 구각(舊殼)으로부터 선탈(蟬脫)하여 심신이 함께 동양에 돌아와 대일본제국의 황민으로 소생하려 한다.……이에 우리들은 본 교회의 구각(舊殼)인 조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연합회 및 그 재원(財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조선합회(朝鮮合會) 유지재단을 자발적으로 해산하여, 이로써 우리들의 새로운 결의를 표명하려 한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교회가 자의에 의해 해산한다고 했지만 강제로 해산되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강제로 해산되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친일적 문구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점에 비애를 느낀다.

성공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성공회에 대한 탄압을 가하여 1940년 평양교회의 챗웰(Chadwell, 車愛德) 신부가 투옥되었고, 1941년 초에는 주교를 포함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드레이크(Henry J. Drake) 신부는 70이 넘는 고령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1942년 7월에 정든 선교지를 떠나 마지막 신부가 되었다. 성공회는 교리

적으로 신부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연히 교회가 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가 일본 내에 있는 군소교단들을 해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주권사상(천황과 그리스도 중 누가 위인가?) 2) 재림설(재림 때 일본 천황도 심판을 받는가?) 3) 반전론 및 평화사상, 4) 국제적 제후(영·미를 귀축(鬼畜)이라고 부르는 구호 속에서 영·미와 제휴하는 사람은 스파이 취급을 받았다.

위의 네 조항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성결교, 안식교 해산의 명분이었고, 셋째는 반전론 및 평화사상, 무교회주의자, 그리고 넷째는 구세군 해산에 적용한 항목이었다.

교회가 신앙을 견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어려운 역경에 부딪칠 때, 그 교회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신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일이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교단을 해체하고 굴종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무속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신봉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신앙 체계이다. 고대 기독교 초기 시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 역사가 짧은 한국 교회는 일제의 폭압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율이자 Rate 할 보험/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이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inexcel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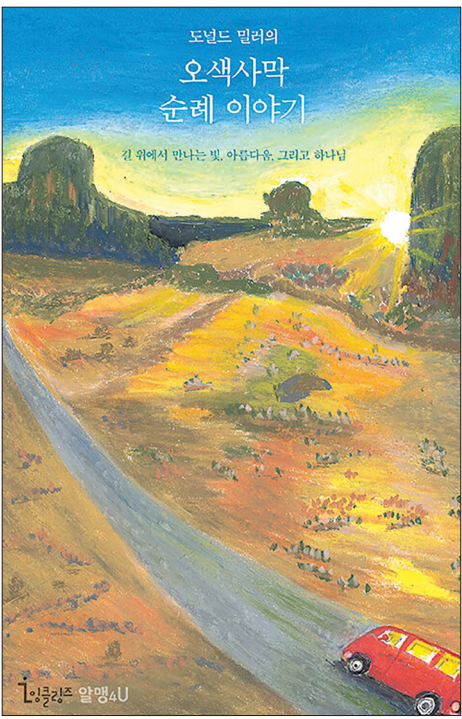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뎅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무모한 여정 속 하나님을 만나다

길 위에서 만나는 빛,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도널드 밀러의 오색사막 순례이야기
도널드 밀러 | 허진 역
잉클링즈 | 396쪽

인생은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책!

계획 없이 떠난 여행길은 어느덧 조금씩 '영적 순례'로 변모해 간다.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도널드 밀러의 오색사막 순례 이야기>는 무언가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국내에 이미 소개된 그의 책들은 꽤 유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지만, 왠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 와닿지 않아 책 장을 처음부터 넘기가 힘이 들었다.

그러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치 로드무비를 보는 듯한 흥미로움 속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다.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도 무방한 듯한 이야기는 읽는 이를 상당히 즐겁게 한다. 그런데 그의 책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자주 내게는 어릴 적 교회생활과 교회 친구들이 떠올랐다.

반(半) 모태신앙 이력을 가진 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꽤 오랜 전통을 가진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200-300명 정도의 장년과 중등부 고등부가 각각 20-30명 정도 있었던 교회였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역사적으로는 한국 교회사에 한두 줄을 채우는 교회였다. 남산 자락 중앙정보부와 서울예술전문대학 건너편에 자리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명동을 맞이하는 서울 중심이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곳에 주거지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해서 교회는 지역 주민이 대다수였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특히나 주일학교는 교회 친구만이 아니라 동네 친구, 학교 친구이기도 했다.

그런 교회 특성을 보면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적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와는 멀어지는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적인 모습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했다. 그래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상당히 범생(?)적인 삶을 가졌던 나로서는 신앙적인

모습에서 최소 남자 친구들과는 괴리감을 가질 때가 있었다. 게다가 교회 내에 몇 년간 학교에서는 불량 학생이나 문제 학생으로 평가받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교회 어른들에게는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정서적으로 여러거나 가정이나 환경으로 상처 입은 이들이 대다수여서, 그들과 대화하고 어떤 때는 도우며 마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주인공이 겪었던 두 세계를 살아가는 듯 몇 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회 중고등부를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술담배 둘 다 전혀 안 하는 몇 안 되는 범생으로서 어떤 때는 좀 외롭기도 하고—당시 술담배는 신앙인으로서의 강한 금기이기도 해서 그것이 일종의 신앙 수준의 판단 기준이기도 했다—그들의 신앙적 모호함으로 신앙생활의 본을 찾을 수 없어 외롭기도 했다.

그러다 교회의 분란으로 인해 교회가 쪼개지고 그 교회에서 다시 나와 투박이 신앙생활을 속에 접하게 된 곳이 몇 달간의 짧은 경험을 한 캠퍼스 선교단체와 나의 신앙 방향성을 바꾸었던 반포에 있는 꽤 건강했던 모교회 대학청년부였다.

강한 보수성을 지닌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와 다르게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범생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접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그곳에서 떨어져 나갔고 나 또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틀과 법칙이 강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그곳에서 만난 친구 하나는 아직도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어진 곳이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였다. 그곳에서 마치 목장에서 자유롭게 키우는 듯한 양과 소마냥 신앙인으로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또 다른 신앙공동체

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낡은 폭스바겐 밴을 몰고 여행을 하는 저자와 폴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여정 속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은 그저 평범한 미국 사람들 같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때 두 주인공의 모습은 무모해보이고 치기 어려 보이고 젊은 청년들의 갖는 욕망과 값싸 보이는 관심거리에 머무는 듯 하지만, 그들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경험한다. 어떤 때 그들은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경험한다. 생각해보면 나도 그러했던 것 같다.

내가 살아오며 접해왔던 이들은 비록 방법은 다르고 관점과 신앙적 스타일은 다르지만, 각각의 그들을 통해 나는 인도를 받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돕기도 했던 것 같다. 저자가 펴낸 다른 책들이 갑자기 궁금해진다. 청년 시절 그의 모습은 몇 년, 또는 수십 년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다.

추신 1: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드는 계속된 아쉬움 한 가지.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저자가 언급하는 여정이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나같이 미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가는 길이 어디쯤 지나가는지, 얼마나 긴 거리를 간 것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본다면 더 이 책을 읽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챗터마다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책 앞에 한 장쯤은 그들이 갔던 길을 지도로 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만 그런 걸까?

추신 2: 국내 번역판 표지그림은 상당히 의미있는 듯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간략이라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추가한다.

문양호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9월, 작가들의 말말말②]

◆황동한 - 이해 안 될 때, 하박국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큰 뜻, 선한 것을 쓰실 뿐 아니라 악을 사용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큰 숲 속에서 작은 나무들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작은



나무 속에서 큰 숲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계획하기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에 처한 유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결국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 결론만 본다면 결국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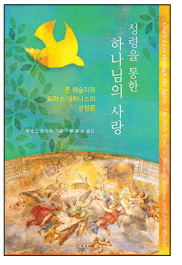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무엇이라 노래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끝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숲을 보기 시작한 사람만이 이 구절이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케네스 로이어(저자), 류재성(옮긴이) -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충실하려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기획은 적절한 신학적 깊이와 목적(telos)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적 증거와 더 크고 포괄적인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둔 체계의 일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결함이 생길 위험이 크다.

웨슬리가 말한 성결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성화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의 빛 안에서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삶과 마음에 신적인 형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인격의 전 존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이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하우스 오브 드래곤> &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2)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제작진과 아마존, PC 때문에 원작 파괴?

성경적 기반 원작 깊은 이해 없어 설정과 분위기 파괴 그 과실만 향유하려다 앞뒤 안 맞는 괴상한 서사 산출 PC 추구 평등·자유, 서구 기독교 신앙과 문화서 유래 기독교에 거부감 보이는 PC 태생적 모순 보여준 사례

◆소설 원작의 설정 파괴: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에서 주제의식 변주의 문제점

현재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에피소드 3까지 진행된 상태로, 각각 서사의 중반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대단한 팬덤을 거느린 소설 원작을 영상화한 작품이다.

그래서 처음 영화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원작 팬들은 기대감과 함께, 설정 파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현재, 많은 팬들이 설정 파괴 및 서사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원작 소설인 <불과 피>(조지 마틴 저)가 판타지 장르의 고전이라 취급될 만한 작품은 아닌 만큼(2018년 발표), 그 내용을 이미지로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유도는 허용되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서사의 긴박감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덕에, 설정 파괴 논란이 어느 정도 불식되는 모습이다. 특히 왕권을 향한 왕가 구성원들과 귀족들의 광기 어린 집착과 수싸움을 잘 표현해서 원작의 주제의식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애초 원작이 판타지 장르의 고전 중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톨킨의 <실마릴리온>이다. 이 대서사시의 팬들 대부분은 원작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서 치밀하고 온전한 영상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영상화 프로젝트는 애초 약간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을 떠안고 출발한 셈이다.

그나마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는 피터 잭슨 감독이 원작의 서사와 설정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이었기에, 일부 극적인 장면에서의 내용 수정을 제외하고(가령 헬름 협곡 전투에서 원작에는 없던 엘프군의 가세라든가, 원작과는 전혀 다른 사루만의 죽음 등) 전체적으로 원작 소설의 설정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는 연출을 선보였다.

특히 금지된 욕망(절대 반지)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그에 저항하는 선의지 발현이라는 톨킨의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전체 서사의 중심에 둔 덕분에, 원작의 주제의식이 잘 보존된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반면 그 프리퀼인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주인공인 엘프 갈라드리엘의 여성적

강인함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주변 남성 캐릭터들의 능력치나 성격을 크게 격하시켜 표현한다는 낯선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작의 여러 중요한 서사들, 특히 시간대 설정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올바름(PC) 이념, 특히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데 주목하다 보니, 정작 초월적 힘을 가진 반지를 둘러싼 서사와 성경의 천사들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는 마리아와 엘다르에 대한 톨킨의 원 설정이 약화되거나 무시된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제작진이 원작의 주제의식을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 전달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원작의 메시지 보존: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뿌리로 삼는 톨킨의 <실마릴리온>

원작에 담긴 부분적 설정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주제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는 포스트모던 문화양식의 대표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원작이 전통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서사나 메시지를 선보인다면, 그 재생물(영상화가 되었던, 패러디가 되었던 간)은 원작의 외형을 어느 정도 남기되 그 메시지를 기묘한 방식으로 변조해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주제의식을 선보인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기존 대중에게 각광받던 작품 양식이나 설정의 힘을 빌려, 낯설고 새로운 메시지를 보다 친숙하고 손쉽게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메시지가 기존의 작품 양식과 설정을 과도하게 파괴할 때 발생한다.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정치적 올바름 이념의 한 지류인 경쟁적 페미니즘을 부각시키기 위해 원래의 기독교적 주제의식을 거의 말살해 버렸다는 점이다.

페미니즘 안에는 수많은 지류들이 있고, 그 지류들 전체를 싸잡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전통적 가부장제는 여성의 삶의 가능성, 그리고 신앙의 가능성을 억압해 왔다.

기독교회는 “남종과 여종”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신앙생활 현실에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과 조화로운



<반지의 제왕>과 <호빗> 트릴로지의 프리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상호작용을 촉구하는 페미니즘의 근본 가치는 원칙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극단화된 페미니즘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삶을 지배하는 권력을 아예 여성 편으로 가져오려는 페미니즘의 지류로서, 남녀의 관계에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장려한다. 이런 페미니즘은 근래 정치적 올바름 이념의 탈을 쓰고 대중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에서 여성 캐릭터의 탁월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타 남성 캐릭터들을 약하거나, 어리석거나, 무능한 인물로 격하시켜 그려내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감독과 제작진이 캐릭터와 서사 연출 측면에서 무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아마존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작진은 상대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연출가와 각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애초 총괄 제작자인 J. D. 페인과 패트릭 맥케이는 <스타트랙 3> 작가진으로 참여한 것 외에 눈에 띄는 경력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원작의 설정과 주제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듯, 원작에 없는 새로운 메시지(페미니즘) 전달에 몰두하다 원작의 설정과 분위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서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게다가 거의 수백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고 1만 2천 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화적 대서사시 <실마릴리온> 특성상, 전체적 주제의식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고서 캐릭터나 서사를 구성하면 원작과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의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실마릴리온>이 성경의 구성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톨킨은 애초 이 작품을 성경의 구성방식과 시간 길이로 생각하면서 작성했다.

그는 성경이 인류의 타락과 구원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에피소드가 집결되어 있는 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실마릴리온>을 집필할 때 성경의 주요 주제인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멜코르, 사우론 등)의 대결, 반신적 존재자들(마리아, 엘다르)과 유한한 존재자(두네다인, 인간, 드워프, 호빗 등)들의 갈등과 협력을 주제로 설정했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아내 이디스 톨킨과의 평생에 걸친 사랑을 신화적으로 그려낸 베렌과 루시엔 이야기를 부각시켰다.

즉 <실마릴리온>은 톨킨 자신의 삶과 사랑과 신앙을 성경의 구성방식과 가르침을 빌려 신화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던 것이다.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제작진은 원작에 반영된 이런 깊은 집필 전략과 정감을 전혀 적용시키지 못한 채, 일부 시청자들에게만 설득력을 발휘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념을 부각시키느라 원작을 파괴하고 있고, 이에 원작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유독 기독교에 거부감을 보이는 정치적 올바름 이념의 태생적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애초 이 이념을 태동시킨 평등과 자유 사상은 서구 기독교 신앙과 문화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정치적 올바름 이념에 경도된 이들은 그 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오로지 그 과실만 향유하려 하다 보니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괴상한 논리와 서사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청빙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1. 예배 찬양 인도에 대한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2.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기독교 교리에 동의 하는 분
- 사역 내용
 1. 각 예배 찬양 인도 및 찬양팀 훈련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신앙 간증서
 3. 추천서
 4. 찬양 인도 동영상
- 제출하실 곳

beautifulchurch@hotmail.com
- 교회 주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교회 홈페이지: www.beautifulchurch.org

아름다운교회
Beautiful Church

가/을/맞/이 기획전

셀리온과 유한건강생활의 부스터 세트 무료 선물 행사

더 높은 복합효과를 위해 함께하면 더 좋은 세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탈모 예방과 발모 촉진은 모발 성장 인자가 정답입니다



헤어성장인자 함유 헤어 셀 스피클 앰플 구입시



디톡스화잉 + 토닉 + 헤어 셀 샴푸 + 컨디셔너 4종 플 세트

주름없는 탱탱한 피부로 가꾸는 E2F4



특허 등록된 콜라겐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함유 E2F4 앰플 구입시



E2F4 세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유정란 배반엽 애그 스템 셀 세트



BP 앰플 구입시



BP 세럼

젊고 활기찬 건강관리는 믿을 수 있는 유한 건강생활 제품으로



유한양행 전용농장만의 최상급 녹용과 홍삼으로만 만든 전 녹용홍삼 스틱 구입시

전홍삼 스틱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의 건강관리



에스트리션 백수오 더블 구입시

관절과 피부 건강관리 백수오 듀얼 콜라겐



피로한 눈, 건조한 눈, 노화된 눈 건강을 위한 복합세트

간이 좋아야 눈도 건강해진다



눈 건강 루테인 2개 구입시



간 건강 밀크시슬 2개

허리와 근육은 물론 뼈 건강까지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코어 프로틴 스틱 2개 구입시



어골 칼슘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증상 복합관리 에스트리션



에스트리션 백수오 퓨어

여성들 요로와 질 건강에 이노플로라 크린베리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L.A. 점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 738-1188

부에나팍점 소스몰 1층 (714) 523-8100

얼바인점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 800-8788